그림자 껴안으며 희망을 노래하다

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서 광주 첫 무대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 바탕으로 5·18 풀어내

시립발레단 '오월바람' 공연리뷰

5·18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창작발레 '오월바람' 이 지난 3일 막을 올

이 작품은 우수공연레퍼토리를 발굴해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'창작산실'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난 1월 11~12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 장에서 첫선을 보였다. 이 날 발레단은 '창작산실' 무대에서의 다양한 평가를 작 품 수정, 제작에 적극 반영해 작품의 완성 도를 높였다.

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찾은 문화예술회 관 소극장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. 코로 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 좌석씩 띄어 앉 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공 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설렘에 관객석도크 게 비어보이지 않았다.

어머니의 등장으로 공연은 막을 올렸 다. 누구를 찾는 듯 하지만 무대에는 아무 도 없다. 그러나 금세 혜연이 등장한다. 밝은 얼굴의 어머니와 혜연은 함께 퇴장한 다. 이들의 퇴장과 함께 무대에는 평화로 운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린다.

무대는 바뀌어 1979년 가을, 조선대학 교 무용과 연습실로 변모한다. 무용수들 이 등장해 연습실에서 각자 안무 연습을 하는 모습은 현재 발레단 연습실과 달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모습이다. 그러나 발표회 연습을 위해 연습하는 이들 중 눈에 띄는 사람 넷이 있다. 다름 아닌 민우, 혜연, 충환, 그리고 향미다. 서로 합 을 맞추며 무용 연습을 하고 있는 이들 사 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

10월,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유 신독재에 반대하는 부산・마산 지역의 반 정부 시위가 연일 보도된다. 한순간 붕괴 된 유신체제에 학과 발표회도 취소된다. 캠퍼스내에서도민주화에대한갈망이높 아져 가는 가운데, 혜연은 운동권 서클에 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, 민우는 멀리서 나 마 혜연의 모습을 보기 위해 서클과 연습 실을 오가며 그 가을을 보낸다.

봄이 찾아오고, 캠퍼스는 연일 어수선 하지만 민우와 친구들은 카니발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혜연과 재회한다. 같이 춤을 추는 둘 사이에 미묘 한 감정이 생기던 순간, 클럽 안으로 최루 탄 가스가 스며들고 모든 이들은 대피한 다. 적막해진 클럽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



5·18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광주시립발레단 창작발레 '오월바람'이 지난 3일 광주문예회관에서 막을 올렸다.

것은 충환과 향미. 충환은 향미 집안의 도 움으로 보안부대에 입대해 대학가를 사찰 하고 있다.

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저항을 군사력 으로 대응하며 민주인사를 대대적으로 체 포, 투옥시킨다. 민우 또한 학교 곳곳을 돌 아다니며 혜연을 찾으려 하지만 보이지 않 는다. 그날 저녁, 민우는 도청 앞 분수대에 서 출발해 광주역으로 향하는 횃불 행렬 속에서 혜연을 발견한다. 며칠 후, 민우는

통금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게엄군에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, 광주 시 내 곳곳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한다.

그러나 계엄군이 잠시 물러나며 광주는 일시적 소강상태에 돌입한다. 그러나 폭 풍 전야라 했던가. 평화로운 현실에도 가 슴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슬픔은 지워지지 않는다.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라도 했듯이 민우와 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

름다운 춤을 추며 사랑을 확인한다.

27일 새벽. 민우와 혜연이 있는 연습실 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치고, 혜연은 군용 트럭에 실려 학내시위 주도와 도청 앞 집 회 가담 혐의로 고문받다 결국 눈을 감는 다. 상무관으로 옮겨진 혜연의 시신을 발 견한 어머니는 오열하고, 그 통곡 소리는 점점 커져 메아리가 되어 도청 앞에 울려 퍼진다.

무등산을 배경으로 계절은 계속 바뀌

고, 이제는 늙어버린 어머니가 5·18민주 묘지로향한다. 많은 무덤 중한 무덤 앞에 선 어머니는 딸을 향한 마지막 말을 내뱉 고, 오월의 바람이 평화를 향해 불어온다.

'드라마 발레' 형식의 창작작품이기 때 문에 과연 대사 한마디 없이 발레 동작으 로만 인물들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단원들의 뛰어난 표정과 손 연기로 해소됐다. 공연 내내 흐르는 젊은 작곡가 나실인의 음악 또한 서사에 맞춰 부드럽게 이어졌으며, 의상 또한 흑과 백 등의 대비를 통해 캐릭터 이해도를 높였 다. 특히 공연 내내 공중으로 힘차게 솟아 오르는 훼떼(fouette)와 그랑 제떼 (grand jete) 등 난이도 높은 발레 동작 들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.

공연장을 나오며, 광주의 이야기를 담 은 광주시립발레단의 창작발레인 만큼 이 공연을 발레단만의 대표 레퍼토리로 발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. 5·18의 세 계화와 진실 정립을 위한다면 5·18의 무 자비함과 잔인함만이 아닌, 시선을 돌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희망과 평화를 조명 하는 '오월바람' 과 같은 작품 또한 필요 하지 않을까. 쌀쌀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그 날 저녁 그들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 는 지금 현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.

/오지현 기자

최종운,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

신진작가상에 이다희…13일 시상식

제21회 광주신세계 미술제 대상에 최종운 (45·설치), 신진작가 상에 이다희(33·회 화) 씨가 선정됐다. 상 금은 대상 1,000만원, 신진작가상500만원이 며,별도창작지원금을 통해 내년 9월 광주신 세계갤러리에서 개인 전이 개최된다.



최종운

광주신세계갤러리는 1차 선정작가 8명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. 1차 선 정작가는 김영남, 김태형, 나지수, 노은영, 서영기, 이다희, 최기창, 최종운이다.

미술제 심사는 김지원(한국종합예술학교 교 수), 서상호(씨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회장), 임근혜(아르코미술관 관장)씨가 진행했다.



최종운작 'This is Orchestra'

대상을 수상한 최종운 작가는 나주 출신으 로 중앙대 조소학과와 런던대 슬래이드 예술 대학교 석사를 마쳤다. 신진작가상의 이다희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이화여대와 글래스고 예술학교 석사를 마쳤다.

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5시며, 작가들의 작품은 1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 전시 /이연수 기자

두 형제의 성장 코믹하게 풀어내

극단 바람꽃 '건달들의 웨딩마치' 7~8일 오후 5시 궁동예술극장

극단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이 오는 7~8일 오후 5시 궁동예술극장에서 6번째 정기공연 을 진행한다.

한종신 극단 바람꽃 대표는 "6번째 정기공 연 작품으로 20세기 브로드웨이를 이끈 미 국의 대표 극작가인 닐 사이먼의 '건달들의 웨딩마치'를 선택했다"고 밝혔다.

'건달들의 웨딩마치' (원제: Come Blow Your Horn)는 국내에 '굿 닥터'라는 작품 으로 잘 알려진 닐 사이먼의 '나팔을 불어 라'를 각색한 작품으로, 닐 사이먼의 첫 브 로드웨이 흥행작이기도 하다.

연극은 알란과 버디, 두 형제의 성장과 세 대 간의 갈등을 코믹하게 풀어낸다. 형인 알 란은 술과 여자를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건달이다. 동생인 버디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

응하며 살아가는 모범생이다. 아버지는 알란 을 못마땅하게 여겨 자신의 사업을 버디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모든 기대를 건 다. 하지만 버디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모범생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에 불 만을 느끼게 되고, 결국 기출해 형인 알란의 집으로 향하게 되면서 갈등은 시작된다.

원광연 광주연극협회장이 연출을 맡은 이 번 공연은 노희설, 한종신, 김예성, 임근영, 노은지, 신해은이 배우로 참여한다. 이번 공 연은 2020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획됐다.

한 대표는 "코로나19로 지친 광주시민들 이 유쾌한 서사를 가진 이 작품을 통해 관객 들이 잠시나마 걱정을 잊고 웃으며 공연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"며 "앞으로도 청년예 술가들을 지원하는 극단이 돼 연극 뿐만 아 니라 마당극, 인형극, 뮤지컬 등 다양한 레퍼 토리를 개발하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 력하겠다"고 포부를 밝혔다. /오지현 기자

최윤규의 인문&상상

긍정의 힘



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·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



태양광 부지 매입!!

- 태양광발전사업 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
- 발전허가 · 개발행위 · PPA완료 부지 우선매입

태양광 발전소 분양시공

주택, 공장, 축사 등 설치!!

- 태양광발전소(RPS) 분양, 시공, 인허가, 토탈 컨설팅
- 정부보조금 지원사업(단독주택, 건축물 태양광 설치)
- ESS(에너지저장장치)사업, 시공
- 태양광 조달우수업체(공공기관, 지자체, APT 등)
- 융복합지원사업 (광주서구, 남구, 동구, 영암, 무안 곡성, 함평)
- 학교태양광사업 (전남, 전북, 대구)

- 신·재생에너지 우수전문기업 (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풍력)
- 전기, 소방, 기계설비공사업
- 전기 종합감리업 및 설계업 1종
- 정보통신 공사업/난방시공업(제1종)
- 금속 구조물·창호공사업
- 조달우수업체 (태양광발전시스템)
- 공동주택(아파트)설계, 감리업
- 한전 무정전 협력업체(배전단가)
- 전기차충전기, 전력량계, 파형관 사업

нр. **010-3735-7113**

대표전화: 1588-4556 문의전화: 062) 384-6333